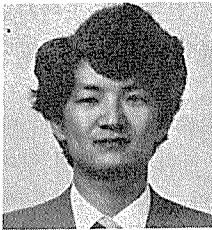


분야별로 독창성있고 새로운 연구 발표

- 제30회 대한기생충학회 학술대회를 마치고



허 선

드높은 가을 하늘 아래 쾌청한 캠퍼스에서, 전국에서 참석한 회원들의 기념촬영이 환한 웃음과 반가움 속에 있었다.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셋—”.하는 소리와 함께 삼삼오오 모여서 그간의 회

포를 푸는 정담을 나누며 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었다. 오래만의 만남이라 서로의 안부와 각 대학내 또는 지역간의 소식을 주고받는 장(場)에서 회원들의 즐거움, 반가움이 가득하였다.

올해로 제30회를 맞는 학술대회는 서울 흑석동 소재 중앙대학교에서 10월 2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일정이 짜여져 연구 논문 36편이 발표되었고 25편의 포스터(패도에 설명과 함께 사진, 도표, 그림이 첨부된것) 설명이 진지하게 진행되었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하여 우리나라 기생충학회 발전에 얼마나 기여하였는가, 연구 발표 내용은 국민 건강에 얼마나 도움을 줄 것인가, 나아가서 국제적인 인정을 받을 만한가, 그리고 연구의 독창성은 어느 수준인가 등을 돌이켜 보는 것이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필자로서 객관적 판단을 하기에는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많은 선배 회원의 준평은 대부분의 연구 내용이 참신하고 새영역을 탐구함으로써 어느 대회보다도 내실있는, 높은 수준의 학술대회로 정착되었다는 것이다.

첫째, 독창성 있는 발표 내용이었다. 61편의 논제 중 분류학(2), 생물학(8), 역학(12), 병리학(5), 면역학(17), 독성학(9), 증례보고(8)등 여러 분야에서 모두가 고심끝에 이루어진 내용으로, 학회에 진일보한 참신성을 엿볼 수 있었다. 그리고 인류의 질병 중에서 소외되기 쉽거나 착안하기 어려운 분야를 연구 조사한 것이다.

서울 의대에서는 장흡충류의 하나인 라쿠노버미스(Lacunovermis)의 인체 기생례를 세계 최초로 발견 보고하였다. 인류에의 감염을 일으키는 새로운 병원체의 하나를

찾아낸 것이다.

전남 나주군(羅州郡)에 사는 66세 할머니가 1년동안 배가 아프고 설사를 계속하는 증세에 프라지퀀텔(Praziquantel)을 투여하여 대변에서 0.4mm 정도의 매우 소형의 기생충을 찾아낸 것이다. 이것이 인체 감염례를 누구도 알지 못했던 '라쿠노버미스(Lacunovermis)'이다(그림1).

원래 바닷새의 기생충으로 해안의 조개, 굴 등을 날로 먹었을 때 사람에게 감염될 수 있는 것이었다. 환자에게 발견되는 충란의 크기는 $20 \times 15 \mu\text{m}$ 로 흔히 볼 수 있는 간흡충이나 요꼬가와와(橫川)흡충보다 소형이므로 앞으로 환자 발견이나 치료에 세심한 주의가 따라야 할 것이다.

전북 완주군(完州郡)의 소가 크립토스포리디움(Cryptosporidium)에 감염되어 있다는 전북수의대의 발표가 있었다. 가축에서의 질병이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하겠지만, 이 기생충은 $5 \mu\text{m}$ 정도의 아주 작은 기생충으로 인체에 감염되어 장점막에 기생하면서 설사를 일으킨다.

만약 면역 기능이 약화된 사람 즉 스테로이드(Steroid)를 장기 복용하는 사람, 항암제를 복용하는 사람, 후천성 면역결핍증(에이즈, AIDS) 환자 등에 감염되면 치명적인 설사를 일으킬 수 있다. 이것은 전 세계에 분포하는 기생충인데 아직 우리나라에는 인체 감염례가 보고되지 않았다. 현재 국내 각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첫 인체감염례를 찾기 위해 부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록 형태학적 관찰에 있어서 논



그림1. 인체 기생례가 세계 최초로 밝혀진 라쿠노버미스(Lacunovermis) (길이 0.4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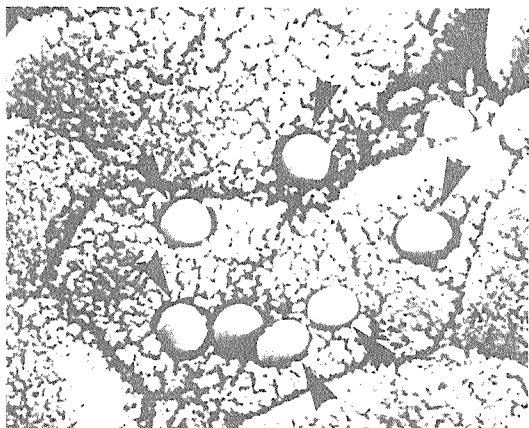


그림2. 동물의 장점막에 기생하는 크립토스포리디움(*Cryptosporidium*)의 전자 현미경 사진(10,000배 확대), 화살표가 가리키는 이 기생충은 사람에게도 감염되어 설사를 일으킬 수 있다.

란의 여지가 있었지만 이 분야의 연구를 자극하는 데에 의의가 크다.

국립보건원에서는 전남 흑산도(黑山島)에서 말레이사상충(*Brugia malayi*) 역학조사를 하였다. 3년째 계속된 사업으로 이번에도 야간 말초혈액검사로 주민 중 11%나 말레이 사상충의 에벌레 형태(*Microfilaria*)가 양성이었다.

이 기생충은 모기에 물려 감염되는데 초기에는 열이 나면서 손발이 붓고 발적이 생기는 이른바 '피내림'이 계속된다. 장기간 계속되면 손발이나 팔다리의 피부가 딱딱해지고 붓게 되는 상피증(象皮症)으로 변한다(그림3).

과거 70년대초까지 안동, 영주, 영양의 경북 북부 산간지역과 제주도에서 그 유행지가 남아 있었던 말레이사상충증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풍토병이었다. 그후 거의 퇴치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최근 유행지가 남아 있다는 것이 발견된 것이다. 앞으로 집단 투약의 효과가 주목된다.

이번 대회에서 가장 열띤 토론을 전개한 것은 돼지가 무구조충(민촌충, *Taenia saginata*)의 중간숙주로서의 가능성이 있다는 충북 의대의 연구발표이었다. 그동안 무구조충의 중간숙주는 소이고 돼지는 유구조충 즉, 갈고리촌충(*Taenia solium*)의 중간숙주로 알려져 왔었다. 그러나 무구조충의 충란을 돼지에게 먹여 그 돼지의 간(肝)에서 갈고리(구)가 없는 무구조충의 낭충(囊蟲, 무구조충의 에벌레 형태)을 회수하였다. 이 사실은 쇠고기를 먹은 적이 전혀 없고 돼지고기를 날로 먹은 적이 있는 주민들이 무구조충에 감염되어 있었다는 과거 여러 조사에서의 의문점을 풀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그림4).

둘째, 포스터 발표를 준비한 점이 어느 대회보다도 훌륭했다. 선명한 사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도표, 그림 등이 많아서 참석자들에게 이해를 높였다. 그러나 포스터를 중심으로 한 토의 시간이 충분하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



◀ 말레이 사상충에 감염된 후 만성경과를 밟아 다리에 생긴 상피증(象皮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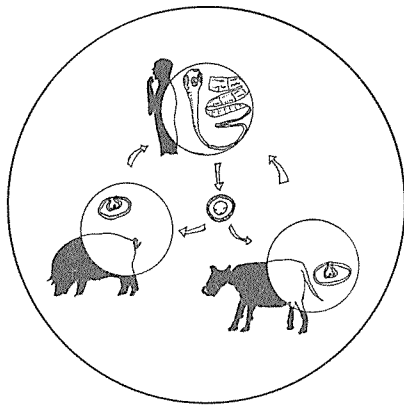


그림4. 무주조충의 새로운 생활사 모형도. 과거부터 알려진 소 뿐만 아니라 돼지도 제2중간 숙주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세계, 발표 시간을 준수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토의를 할 수 있었던 점이 어느 때보다도 돋보였다. 발표하는 내용의 설명이 요약되어 경청하는 데 지루하지 않았다.

이것은 충분한 리허설의 덕분이 아닌가 한다. 대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준비 과정이라고 강조하고 싶었다.

많은 참석자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공동의 대화 광장을 조성한다는 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올해에도 원로 대선배 회원님들의 대거 참여하시고 연구 발표에도 정열을 쏟으시는 것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다. 학문 탐구에는 노소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신입회원들의 발표도 자신만만한 태도와 열의가 넘치는 모습에서 학회 발전의 미래상을 읽을 수 있었다.

내년은 학회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연륜만큼의 성숙한 학회로 발전된 모습으로 학술대회가 뜻깊게 준비될 것을 기대한다.

훗날, 호반의 도시 춘천에 자리한 한림대학교에서 학술대회를 유치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발표를 마친 후, 소양호에 배 띄어 놓고, 수상 산책을 하면서 그 동안 이마에 배인 땀을 말끔히 씻어 내시라고 회원들에게 권해야겠다.

(필자= 한림대학교 의과대학)